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6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또 학점과 관련한 얘기를 한 마디 해야 하겠군요. 학기말만 되면 언제나 학점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대학 다닐 때에 비하면 요즘 학생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는 시험 열흘 전부터 정신 차리고 준비하면 A학점 얻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이 임박해 오는데도 노트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게으름을 피웠습니니다.

얼마 전 스누라이프에서 재미있는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스누라이프 눈팅을 즐긴다는 건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겠지요.) 어떤 학생이 학부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 맞아줘야 나중에 교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질문 뒤에 “이준구 교수가 학부 때 많이 놀았다고 해서 위안을 얻기는 했지만요.”라는 말이 덧붙여 있더군요. 내가 학부 때 실컷 놀고 나중에 교수가 된 사람의 표본으로 제시된 셈이었어요. 그 글 보고 혼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내가 학부 때 많이 놀았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학생활을 어찌 그렇게 방탕하게 했나라고 자책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100% 진실입니다만, 그때는 나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설렁설렁 놀면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놀면서도 꽤 좋은 평점을 받았던 것은 친구들이 더 많이 놀았기 때문이었지요. 변명 삼아 설명을 해보자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는 정치상황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걸핏하면 대학이 휴교상태에 들어가는 바람에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대학과 대학원(1년)에 다녔던 5년 동안 학교가 무려 세 번이나 휴교가 되었습니다. 휴교가 되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학교 문을 닫고 모든 수업이 중단되지요. 대학원 1학년 때인 1972년에는 10월 초에 소위 “10월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휴교 조치가 내려져 2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에 개학하고 한 달 공부하고는 2학기를 접게 된 것이지요. 그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는 공부할 교과서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가 이렇다할 교재도 없이 교수님의 강의노트 하나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치기가 수월하기는 했는데, 강의노트 한 권만 달달 외워가면 A학점 얻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나 거시 같은 핵심 과목도 변변한 교재 하나도 읽지 않고 강의노트 하나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때 내가 다니던 서울 상대에는 거시를 가르치실 수 있는 교수가 단 한 분도 없었던 비참한 시절이었지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졸업 후 취업이 거의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점이 좋은 나쁜 서울 상대 졸업하면 아무 데서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지요. F학점 맞으면 친구들 불들고 “나 이번에 권총 찼다.”고 자랑을 늘어놓을 정도였습니다. F학점을 두 개나 맞으면 쌍권총 찼다고 으스스대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대부분 학생들은 학점에 아랑곳하지 않고 놀 것 다 놀면서 살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학생 시절의 나와 내 친구들은 공부다운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학 졸

업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요즈음의 학생들의 공부량은 엄청나게 많은 셈이지요. 이 점에서 나는 요즈음의 학생들을 무척 존경하지만,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무지막지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데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이런 스트레스가 한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학점에 목을 매는 학생들이 많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어떤 과목을 들으면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느냐에 의해 수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느냐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점 짜게 주고 학사관리 까다롭게 한다고 소문난 교수의 경우에는 강의가 아무리 좋더라도 수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부정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리고 시험이나 학점이 갖는 교육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무조건 좋은 학점만을 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시험문제를 만들 때는 학생들이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냅니다. 달달 외워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가능한 한 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때야 어쩔 수 없다는 치더라도, 대학에 와서까지 단순한 암기 위주의 반복학습을 해서야 쓰겠습니까? 개념과 이론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의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학 교육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내 재정학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는 학기말 시험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인 사람이 많았을 걸로 짐작합니다. 수강생 100명 중 0점을 맞은 사람이 꽤 되는 걸 보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지요. 이번 학기말 시험의 포인트는 어떤 공식을 외워서 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주어진 수치를 대입해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주어진 수치를 구해 답을 내는 과정은 엄청난 수학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덧셈이나 곱셈 정도를 할 줄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 단순한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 반응을 들어보니 문제가 어려웠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군요. 그러나 0점 맞은 학생도 많았지만 90점에 육박하는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도 많았습니다. 시험 그 자체가 어려웠다는 주장은 성립하기가 힘들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학생은 내 시험이 랜덤한 성격을 갖는다고 불평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건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낸 동료 학생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 시험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만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만 외우고 있을 뿐 주어진 수치를 대입해 답을 구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피와 실이 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난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스타일의 시험을 냈지만, 그런 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수강생이 과연 몇 %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험을 잘 못 치른 학생들 중에는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설사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나의 그런 메시지를 읽고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닌가요?

시험뿐 아니라 학점에도 나름대로의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쁜 학점을 주어야만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A학점을 얻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불성실하게 일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 일부 학생은 나쁜 학점을 받고 자신의 불성실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교수를 탓하기만 합니다. 요즈음의 학생들이 학점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제발 그런 태도를 버리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학기에는 학점이 나간 후 고쳐달라고 하는 학생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적었습니다. 미시와 재정학 모두에서 학기말 시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학점은 이와 무관하게 후하게 준 덕분이라고 짐작합니다. 예전에는 “F폭격기”로 이름을 날렸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학점이 상당히 후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이준구 교수는 학점이 짜니까 듣지 말라고 말리는 선배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 학점이 짜다는 핑계로 자신의 불성실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학점을 올려주지 않으면 자신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말로 읊소하고 위협하는 한 명의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 33년이고, 서울대학교에 온 지 30년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매 학기 이런 학생이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나는 학기초에 예방을 위해 단단히 타이르는 전법을 자주 씁니다. 학점을 무조건 잘 주면 이런 학생이 나타날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난 내 편안함을 위해 내가 교수해 온 교육적 원칙을 버리기는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타이러 그런 학생의 등장을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선 나는 나쁜 학점을 받으면 큰일나는 사정이 있는 사람은 내 강의를 수강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나는 시험을 친 결과에 의해 기계적으로 학점을 주기 때문에 각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배려해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서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한 번 준 학점은 고쳐주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덧붙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이런 내 경고를 ‘헛된 위협’(empty threat)으로 알아듣는지 스스로 걸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학기말만 가면 언제나 울고불며 매달리는 학생이 반드시 나타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지요.

그 다음에는 낙제학점을 면하려면 최소한 출석이라도 충실하게 하라고 타이릅니다. 난 대체로 큰 클래스를 가르치기 매번 출석을 부르진 못합니다. 한 학기에 너댓 번 출석을 불러 전부 출석한 학생에게는 가점을 주고, 전부 결석한 학생에게는 감점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학기말에 와서 울고불며 매달리는 학생은 대체로 출석이 아주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원래 머리가 나빠서 시험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출석이라도 충실히 하면 낙제학점을 면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성적이 나쁜 데다가 출석마저 부실하면 아무리 봐주려 해도 봐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제학점을 맞으면 큰일이 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미리 출석이라도 잘 해두라는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르는 말은 수강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나를 찾아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간고사를 친 다음에는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반드시 나를 찾아와 의논해야 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 줍니까? 내 조교를 가정교사로 붙여줄 용의까지 갖고 있으니 서슴지 말고 찾아오라고 몇 번을 거듭해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매 학기 나에게 찾아와 울고불며 매달리는 학생이 꼭 한 명 이상 나타납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가르쳐준 사전 예방조치를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막판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쁜 학점을 받으면 큰일나는 절박한 사정이 있으

면서도 내 경고를 무시하고 내 강의를 듣고는 나중에 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출석이 무척 부실합니다.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렇게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출석도 안 한답니까? 그리고 그들 중 평소에 나를 찾아와 문제가 있다고 도움을 청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나를 찾아온 학생은 학점을 올려주지 않으면 제적을 당한다고 울고불며 매달리더군요. 그 친구는 중간시험이 최하위급이었지만, 나를 한 번도 찾아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학기말시험에서 0점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F감이었지만 내 고질병인 온정주의 때문에 고클번인 그에게 D-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려달라고 울고불며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왜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며 출석은 왜 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무언가 이유를 대며 변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명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하는 그에게 만약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왜 사전에 나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나를 찾아와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학생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양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학생은 내가 준 기회를 여러 번 날려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만회의 기회조차 놓쳐 버렸습니다. 자신의 불성실한 태도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학기말시험이 임박해서는 문제가 심각함을 알았을 것이고 특히 시험을 마친 후에는 과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단계에서 나를 접촉했다면 내가 그의 무리한 요청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학점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 마지막 남은 귀중한 기회를 날려 버렸습니다.

내가 구태여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이 예를 통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충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 자신이 제적된 운명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여러 차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그 기회를 모두 날려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쁜 학점이 나온 걸 보고 그때서야 뒤늦게 울고불며 매달리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후 뒤 돌아 보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은 게으름 아니면 쓸모없는 자존심 이런 사소한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성의를 발휘하고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는 우리 속담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사회에서는 이런 실수 하나로 온 인생이 그대로 날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현명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태의 예방을 위해 이 방법을 써보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보는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으름을 피우며 대응책을 찾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불행한 사태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불행한 사태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행운이란 것도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일 때가 많습니다.